



# “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!” - 자궁암
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자궁암 유소견 현황(1999년 6월 중)

암 검진인원	지 부 별	자궁암 유소견자(42명)	자궁암 확진자(11명)
29,187명	서 울	4명	1명
	부 산	8명	2명
	인 천	3명	-
	강 원	1명	1명
	충 북	3명	-
	대 전 충 남	6명	-
	광 주 전 남	3명	-
	경 북	7명	5명
	경 남	1명	1명
	제 주	6명	1명

## 자궁암 발견 사례

건협 서울지부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이○○씨(45세)는 자궁암을 발견하고 현재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. 또 부산의 박○○씨(40세), 곽○○(39세)도 건협 부산지부에서 자궁암 유소견 판정을 받은 후 일신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.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협 각 시도지부 종합검진에서 자궁암 유소견 판정을 받은 후 종합병원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혹은 치료를 받고 있다.



## 자궁암이란

우리 나라 여성 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궁암인데, 그중 경부암이 97% 정도 된다.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, 위생상태가 나쁜 사회 계층의 여성, 첫 성 경험 연령이 낮은 여성, 성 경험이 많거나 매독 등 성병을 앓았던 여성, 다산(多産)을 한 여성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.

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, 상피내암의 경우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80% 이상이나 된다. 따라서 하복통·요통·성교 시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때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.

자궁암은 초기에 발견만 되면 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 중의 하나지만,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

“자궁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100% 완치가 가능하지만,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쁜 암이다. 따라서 기혼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궁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.”

“자궁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100% 완치가 가능하지만,  
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쁜 암이다.  
따라서 기혼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궁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.”